

2015년 6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5.6.25(목) 15:00~16:20

■ 위원 주요 발언 내용

▲ 심층성 확보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 14일 '뉴스09' 현장IN 도심 벽면 그래피티, 예술과 낙서 사이 기사에서 도심 속 벽면에 그려진 그래피티. 거리예술일까 아니면 낙서에 불과한 불법행위일까 내용과 관련해 다리에 매달아 놓은 자물쇠 때문에 다리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자물쇠를 철거한 파리 풍데자르 다리 난간을 그래피티로 꾸몄다는 내용도 함께 소개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성낙용 위원)
- 18일 '뉴스12' 뉴스 특보로 편성된 여야 황교안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 내용에서 이완구 전 총리 사퇴 이후 52일간의 총리 공백사태가 해소 되었는데 황교안 총리 어떤 인물인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건국대 특임교수와 연합 뉴스TV 정치부 기자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음. 청문회의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병역문제, 전관예우, 고액 수입료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준비부족, 청문회에 임하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고 진정성을 보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과 야당도 의혹을 갖고 추궁하기보다는 사실에 기초한 질문으로 검증 능력을 키우고 청문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등의 개선점도 함께 언급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성낙용 위원)
- 11일 촛불집회 8년 만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1위 눈앞내용에서 미국산 소고기가 호주산보다 30% 이상 비싼데도 불구하고 수입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 듯함. 8년 전 광우병 논란 속에 많은 기관, 단체가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고, 언론은 이를 확대·재생산했었음. 그러나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소비를 통해서 이러한 현상이 근거 없었음을 반증한 것이라 생각함. 때로 언론의 역할은 여러 집단 간 정치적 이벤트, 세력 과시 등 눈에 보이는 현상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이고 글로벌한 시각에서 시사비비를 가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특히 연합뉴스TV와 같은 보도채널은 더욱 이러한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음(이용우 위원)

▲ 균형 있는 보도와 언론의 역할 고려해야

- 24일 롯데홈쇼핑의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고 과태료를 부과 당했다는 기사에서 부과한 공정위의 의견만 있을 뿐, 부과당한 롯데홈쇼핑측의 입장이 없음. 이해 당사자가 있는 기사에서는 반드시 상대방에게도 반론의 기회를 주는 것이 균형

감 있는 보도자세인 것으로 판단됨)이용우 위원)

- 25일 최저임금 올리고 서민생활비 내린다 내용에서 정부 추경편성 기사 중 소비를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보도했는데, 인상된 최저임금의 혜택을 누리는 근로자들에게는 긍정적이지만, 인상조치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당수 근로자들과(아파트 경비원 등),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감소하는 채용 등 부정적인 효과도 만만치 않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포함 되었으면 함(이용우 위원)
- 17일 농협노사, 가뭄피해지역에 식수지원내용에서 가뭄 피해가 40년 만에 최악 일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는 시점에서 각계가 가뭄피해 극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을 많이 보도해 주었으면 함. 또한 가뭄이 해갈이 되고 나서도 농번기에 일손부족 현상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므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언론이 앞장서서 농촌 일손 돕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이용우 위원)
- 25일 메르스 여파 대한항공, 아시아나 직격탄..예약취소 쇄도내용에서 비단 항공, 여행업계 뿐만이 아니라 각종 소비지표가 총체적으로 얼어붙고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는 듯함. "메르스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서 죽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럴 때 방송 등 언론에서 의 공영성이 필요함. 연합뉴스TV를 비롯한 언론이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나서자", "소비 진작, 사자, 먹자, 놀자"는 취지의 캠페인을 벌일 필요성이 절실함(이용우 위원)

▲ 화면구성 및 부적합 표현, 자막오류 등 개선 필요

- 5월 29일 23시 뉴스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측에 대해 보도하면서 수석비서관 회의 장면을 내보냈는데 전 정무수석이 사퇴한지 오래되었음에도 배석해 있었음. 3일 원내대표와 청와대와 관련된 동영상 일부도 이전 화면을 이용했는데 역시 물러난 전 정무수석이 함께 있었음. 자료 화면을 쓸 경우 꼭 자료화면이라는 것을 표시하여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를 부탁함(양승찬 위원)
- 뉴스 방송시 화면 7시 방향 구석에 넣어오던 23번 로고를 큐빅형 회전식에서 고정식 사각형으로 변경하여 움직이지 않게 한 것이 눈에 띄었음. 종전 회전식보다 변경한 고정식 숫자가 좀 더 낫다는 의견임. 종래 큐빅형 회전식은 입체감이 있고 그 자체로 고급스러워 보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시선을 분산시키는 결과로 뉴스보도 자체에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었으며 1시 방향에 표현된 '연합뉴스TV'문구를 종합해서 채널의 정체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임(최진녕 위원)
- 21일 오전 9시 뉴스 중 긴급뉴스로 들어오는 붉은색의 띠 자막으로 속보를 다루면서 메르스 사망자가 26명이라는 내용을 치명률이라고 표현했음. 치명률은 목

숨을 갓아갈 정도의 위험을 치명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실제 사망한 숫자를 표현하자면 치사율이라고 표현했어야 함(강대인 위원장)

- 5월 29일 저녁 8시 '시행령 수정권' 논란 보도는 일반 시청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음. 최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이 좋았는데 법률 용어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함(양승찬 위원)
- IS 극악무도 관련 내용에서 익사, 신체폭파 영상을 보여주었음 물론 영상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장면의 자막처리시 노출 수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함. 자막 설명이 그대로 설명해주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어 수위조절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음(김연화 부위원장)
- 21일 '뉴스14' 메르스 관련 보도 중 법무부장관 내정 소식에 따른 청와대 연결은 매끄럽고 자연스러웠음. 하지만 다시 메르스 관련 보도로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메인 자막은 '법무부장관에 내정', '호남출신 법무부장관 기용', '현직 고검장 발탁' '기수역전' 등의 내용을 계속 내보냄. 법무부장관 내정 뉴스를 진행할 때 자막이 몇 차례 이어졌으므로 다른 뉴스 내용에 굳이 자막을 지속적으로 내보낼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김(성낙용 위원)
- 화면 왼쪽 상단에 위치하면서 화면내용 전달하는 자막들이 간혹 다음 뉴스까지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시청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종종 발생됨. 21일 저녁뉴스에서도 '중국 광란의 질주'라는 자막에 화면이 보도된 후에 이어서 영국의 상황이 전달되는데 자막은 바로 전환되지 않음(이용진 위원)
- 15일 오전 8시 35분경 일본 노인 생물학적 연령 5-10년 젊어졌다는 내용의 자막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음. 20일 오전 8시 10분경 홍콩독감 비상 6일새 16명 사망이라는 자막 뉴스에서도 홍콩 독감이 우리나라와 홍콩 중 어디에서 발생했다는 것인지, 또 어느 나라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함. 지금처럼 온 국민이 메르스 때문에 불안해하는 시기에 홍콩 독감 뉴스를 이렇게 맥락 없이 보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최현철 위원)
- 13일 저녁 8시 실시간 주요뉴스가 줄띠로 전달되는 가운데 프로야구 경기 결과가 토요일 당일 경기가 끝난 후였음에도 12일 금요일 것이 전달되었음. 정보의 신속성, 정확성, 신뢰성을 위해서 주말 방송의 속보는 늘 주의할 필요가 있음(양승찬 위원)

▲ 메르스 보도 관련 의견

- 메르스 관련 내용에서 매우 심각하다고만 보도하는 등 사실만 알려주기보다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예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필요성이 있음(김연화 부위원장)
- 24일 뉴스1번지 메르스 일주일새 산발적 확산세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다른 프

- 로그그램에서는 진정세라고 나왔음. 상반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신뢰성이 깨질 우려가 있으므로 통일성을 갖고 접근해야 함(김연화 부위원장)
- 6월 한 달 동안은 모든 사회적 이슈가 메르스 보도에 묻혔음. 메르스 관련 보도는 예방에 대비 하도록 하는 환경감시기능 보다는 불확실한 정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고 매일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 증가 위주로 보도를 하여 국민들의 두려움을 가지는 역기능을 초래 함.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면 그동안 노출된 문제점과, 우리나라 병원문화(간병, 문병 등)를 바꾸는 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연합 뉴스TV에서 선도하였으면 함(김용주 위원)
 - 4일 '뉴스1번지' 메르스 바이러스, 한국서 변이 가능성 내용에서 메르스의 예방 대처방법, 변이 가능성 등을 의학 전문가가 아닌 정치평론가들이 출연해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일지라도 보도에 신뢰를 주지 않았음(김용주 위원)
 - 8일 메르스 환자 검사 치료비 전액 국가부담 내용에서 비용부담 때문에 메르스 의심 증상을 숨기거나 늦게 신고하는 사태를 막기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 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는데, 수많은 대응책과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행정을 질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급박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이런 문제점을 취재하여 보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김용주 위원)
 - 8일 '뉴스현장13' '메르스 의심시 행동요령' 기사에서 메르스 자가격리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시점에 다른 사람으로의 전파를 막기 위한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보도해 좋았지만 메르스 예방 수칙(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이나 재채기시 주의사항 등)도 함께 기사화해 반복 보도하면 좋을 것(성낙용 위원)
 - 6월 3일, 4일, 메르스 관련 기자의 리포트가 이틀에 걸쳐 전달되었음.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본인의 리포트를 본인이 소개하는 것도 조금 어색했음. 전문성이 있는 보도를 하기 힘든 것은 이해하지만 반복되는 내용이 많이 소개되었음(양승찬 위원)
 - 모든 종편에서 실시간으로 메르스 진행 상황을 전달하면서 언론이 오히려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느낌이 들었음. 방송에서 과연 그렇게까지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방송 관계자들의 사후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됨. 메르스에 대한 과열된 보도로 시청자들이 대부분 팩닉 상태에 빠져있는데 13일 뉴스1번지에서 '차기 대권주자들의 메르스 대처법'이란 주제를 가지고 패널까지 동원해 진행했는데 생사의 문제, 전염의 공포 등에 빠져있는 시청자들이 과연 공감할 수 있었는지 매우 불편했음(이용진 위원)
 - 24일 메르스 관련 내용에서 현재 보도가 정확히 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임. 정확한 현상을 보도하는 것은 좋았지만 메르스는 감염경로와 침투를 막는 방법 등 과학적인 측면에서 전문가의 의견으로 보완을 했으면 함(이헌규 위원)
 - 언론사들이 메르스 사태를 다루는 나라가 몇몇 국가들에 편중되어 있음.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미국(또는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은 시시콜콜한 작은 사건도 보

도하는데 반해 다른 나라(특히 중동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잘 보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메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년 전부터 발생하여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이 사망한 위험한 병인데도 불구하고, 메르스가 발생할 때까지 이를 제대로 보도한 언론사들이 없었고 메르스는 낙타가 매개하는 병이라는 정도를 보도할 뿐 심층적인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움.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몇몇 나라에 편중되어 보도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세계 각국의 정보를 균형 있게 전달할 필요가 있음.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특파원을 파견한 연합뉴스의 역할을 기대함(최현철 위원)

- 언론사들은 대형 사고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기본 틀을 만들어야 함. 이제 곧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홍수로 인한 주택 붕괴, 시산사태, 인명 피해 등)가 나올 수 있는데 예기치 못한 메르스와 같은 신종 전염병과 사회적 문제(연금, 노후 문제, 가계 부채 등)등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음. 이제 연합뉴스TV도 사건 보도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시청자가 원하는)제대로 된 뉴스를 전달하여 시청자의 신뢰를 구축해야 하며 기획보도를 통해 전문성 있는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최현철 위원)

▲ 진행자, 출연자 관련 의견 및 긍정적인 평가

- 19일 주말 날씨 포커스에서 Kweather자체 제작프로그램이라는데 여타 날씨보도와 달리 남성과 여성 2명이 함께 날씨를 예상하고 주말 일상생활에 관해 보도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음. 다만 날씨가 덥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남성 캐스터가 반팔 남방에 노타이 차림으로 출연하는 것이 보기에 따라 방송의 신뢰성을 조금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음(최진영 위원)
- 10일 오후 9시 5분경 중부지방 극심한 가뭄 소식을 전하면서 여섯 분의 시민이 인터뷰를 했는데 다섯 분이 서울시민이고 한분이 고양시민 이었음. 가뭄으로 직접적인 피해자는 농민들이고 중소상인들도 피해자일 수 있지만 이 다섯 분의 시민이 과연 극심한 가뭄에 대한 의견을 내실 수 있는 분인지. 이는 편의 위주의 인터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봄(강대인 위원장)
- 7일 오전 11경 메르스 발생 병원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오후 2시에 수정 발표가 있었음. 오후 4시-5시반경에 연합뉴스TV 에서는 다른 방송사들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음. 문제는 다른 방송사들에 비해 지적이 피상적이었다는 것임. 다른 방송사와는 달리 시사평론가 한 사람이 나와서 설명하고 있는데, 의학 전문가도 아닌 사람 한 명만 나와서 설명하는 것은 전문성도 결여되어 설득력이 없고,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함(최현철 위원)
- '미니다큐 오늘' 81화 성북동 이발사 명랑 할머니 내용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

성 이발사인 81세 현역 이발사 이덕훈 할머니의 일하는 아름다운 모습과 이발요금도 적게 받으려 하고 단골손님은 더 주려고 하는 모습은 각박한 도회지에서 사람 냄새나는 훈훈한 프로그램이었음(김용주 위원)

- 9일부터 방송된 '명장의 조건'에서 그동안에는 보통은 명장의 일대기 위주의 내용이었지만 이번에는 제작 대상이 대한 차별화를 실현한 것으로 생각됨(이현규 위원)
- 최근 뉴스 배경화면에 CH23 로고를 크게 넣고 있는 것을 봤음. 후발 방송사다 보니 채널번호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서 시청자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읽히는데 매우 좋은 시도라고 봄. 여러 종편과 보도채널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몇몇 지상파 방송 외는 채널번호를 기억하지 못함. 반면 연합뉴스TV는 7시 방향에 채널번호를 삽입하고. 이에 더하여 배경에 까지 번호를 넣음으로써 채널이 23번이란 것을 쉽게 암기할 수 있음. 앞으로도 채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람(최진영 위원)
- 지난 5월부터 연재하고 있는 기업비사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굵직한 줄기들을 형성했던 기업의 성장사를 우리 생활과 경제의 단면들과 연계하여 잘 풀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시리즈임. 역동의 시기에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기업과 기업가들의 기업가정신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에 충분한 듯 하고 안팎으로 우리 경제가 힘든 시기이니 만큼, 기업을 하는 많은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베스트셀러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대함(이용우 위원)
- 21일 '뉴스14' 날씨예보 관련 기상 캐스터가 서대문구 홍제천의 폭포 앞에서 날씨예보를 진행했는데 더운 날씨에 스튜디오 안에서 기상도를 보고 전할 때보다 자연 풍광과 나들이객의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날씨예보에 대한 생동감이 느껴져서 좋았음(성낙용 위원)

▲ 프로그램 제작 의견

- 이번 하모니 프로그램에서는 농촌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지적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끈끈히 살아가는 가족으로 바뀌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족의 프로그램은 별도 편성하더라도, 하모니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족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모습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으로 남기를 바람(김용주 위원)
- 카메라시선에서는 프로그램에서 전달하지 못한 취재 과정의 영상, 시청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에피소드 등을 소개하는 코너로 비슷한 뉴스가 반복되는 현재의 편성 패턴을 볼 때 신선함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됨. 조금 더 다양한 이슈를 다루어도 좋을 것 같음(양승찬 위원)
- 표절논란 소설가 신경숙 사태' 보도에서 검찰수사 발표라는 시점에서는 과연 수사가 바람직한지?, 문학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작표현의 문제로 그칠 일인

지? 아니면 이러한 표절 사태시 외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에 대한 기획보도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음(이용진 위원)

▲ 보도 아이템 선정 시 광고성 주의 및 기타 개선 의견

- 10일 '비즈톡톡'에서 새로운 상품 아이템을 소개했는데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함. 광고, 홍보성 성격이 강한 부분은 늘 주의할 필요가 있음(양승찬 위원)
- 7일 메르스 관련 정부발표를 라이브로 전달했는데 전송된 화면을 보면 현장의 내용이 타방송 보다 몇 초 늦게 지체되어 전달되었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생방송 중계 방식(위성, 마이크로웨이브, 케이블)이나 SO의 송출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지체 되어 전송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타방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양승찬 위원)
- 후발주자인 연합뉴스TV가 타 채널과 경쟁할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연합뉴스가 제공하는 실시간 뉴스임. 하지만 이미 끝난 뉴스가 계속 뉴스스크롤에 나가고 있다든지 실시간 뉴스로 여전히 떠 있다든지 하는 문제는 이제는 인력을 보충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함. 연합뉴스TV 실시간 뉴스가 갖고 있는 장점을 더 살리기 위해 이런 부분을 경영진에서 논의를 해 보면 좋을 것(강대인 위원장)
- 연합뉴스TV의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임. 하지만 자막의 붉은 색채를 조금 더 세련되게 눈에 띄면서도 시청자들에게 거부반응이 없도록 조금 더 세심한 신경을 써주면 좋겠음(김연화 부위원장)
- . (끝)